

파니움 - 넘버 4

동맹

Jeff Pippenger

2025-03-04

파니움의 역사에서 안티오코스 마그누스와 마케도니아의 필립 사이에 동맹이 형성되었다. 전투는 안티오코스가 어린 프톨레미 5세를 상대로 직접 수행하였고, 필립은 그가 영토의 다른 지역들에서 전쟁을 벌임으로써 이집트의 어린 왕을 돕기 위해 오려던 다른 군대들의 지원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기여하였다. 이는 예언적으로 '어린아이'가 마지막 세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집트의 어린 왕으로 유형화된 남방의 마지막 왕 푸틴이, 파니움에서 프톨레미 5세를 격파한 안티오코스 마그누스이자 1989년에 소련을 격파한 레이건으로 표상되는 트럼프에게 패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를 뜻하며, '말'은 군사력과 경제력 모두를 상징한다. 말은 병거를 끌고 군사들이 타며, 또한 상품을 시장으로 운반한다. '말'은 '병거, 선박, 기병'을 상징하며, 이는 사십 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방 왕과의 대리적 관계에서 미국의 주된 상징이다.

트럼프의 동맹자는 마케도니아의 빌립과 분봉왕 헤롯 빌립 안에서 두 가지 유형적 표상을 지닌다. 헤롯 빌립이든 마케도니아의 빌립이든, 그 상징은 각각 카이사르 또는 안티오쿠스에 의해 그에게 부여된 권세를 사랑하는 자를 지시한다. 빌립은 말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한 빌립은 마케도니아 출신이었는데, 그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에서 중심적이며 기초적인 역할을 지녔다.

그곳은 그의 고향이자 아버지 필리포스 2세에게서 물려받은 왕국이며, 그의 방대한 제국을 향한 발판이었다. 그리스 북부에 자리한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나(펠라, 기원전 356년) 자란 정치·군사적 핵심으로서, 그의 정복을 뒷받침한 초기의 자원, 인력, 조직 구조를 제공했다. 요컨대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드로스 왕국의 핵심, 곧 출발점이자 군사적 동력이었고, 그의 제국이 국경을 훨씬 넘어 확장되었을 때에도 그를 마케도니아 왕으로서의 정체성에 단단히 묶어 둔 지역이었다.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의 네 부분으로 분할된 왕국에서 북방 지역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한 빌립은 '사분의 일'을 뜻하는 테트라르크이며, 다른 한 빌립은 알렉산더의 옛 제국의 사방의 네 바람 가운데 '사분의 일'이다.

헤롯은 언약을 거부하는 자를 대표한다. 헤롯으로 이어지는 혈통의 조상인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버렸다. 선택된 언약 백성의 역사 바로 초두에, 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언약을 거부하는 자들의 상징이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된 언약 백성을 열두 지파로 확대하시려던 바로 그 시점에, 에서는 반역했다. 고대 이스라엘의 종말에,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주장했을 때, 유대 민족은 처음에 에서가 예표했던 그 종말의 상징이 되었다. 헤롯의 가계는 에서와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시작에는 언약을 깨뜨린 반역자로, 끝에는 반역적인 언약 백성으로 상징되는 혈통이다.

헤롯 대왕은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오게 한 세금을 부과하였고, 그의 세 아들 가운데 한 사람, 곧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십자가의 때에 통치하였다. 그리스도의 생애, 곧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헤롯 가문에 의해 상징적으로 표상되며, 이로써 그 역사는 택하신 백성이 권고를 받는 때로 규정된다. 그러나 그 권고를 유대인들은 대체로 보지 못하였다.

헤롯 대왕은 예수의 탄생 때문에 유아들을 학살했는데, 이는 이집트가 유아들을 죽이던 모세의 탄생 당시의 역사를 되풀이한 것이었다. 첫 번째 유아 학살은 기대되던 선택된 자를 살해하려는 시도였고, 마지막 유아 학살 역시 다시 그 기대되던 선택된 자를 살해하려는 시도였다. 십사만 사천 명은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며, 예언에서 '노래'는 경험을 의미한다. 십사만 사천 명은 유사한 경험들이 병행되는 시대에 산다. 그러한 유사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1973년 1월 22일 미국에서 낙태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과 함께 찾아왔다. 그 후 49년 동안 연방정부가 승인한 낙태로 인해 약 6,600만 명의, 십사만 사천 명에 포함될 잠재적 후보자들이 학살되었다.

힘은 군사력을 상징한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용은 자기의 권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요한계시록 13:2.

용, 곧 이교 로마는 교황권에게 세 가지를 제공했다. 즉 "그의 권세와 그의 보좌와 큰 권위"이다. 12절에서 땅의 짐승인 미국은 자기 앞의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절의 '권세'라는 단어는 12절에서 '권세'로 번역된 단어와는 다른 그리스어 단어이다. 2절에서 '권세'는 G1722로: '정면에서(문자적으로나 비유적으로): 면전(시아)에서'를 의미한다.

12절에 나오는 "power"는 다른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그는 첫째 짐승 앞에서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며,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치명상을 입었으나 나은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요한계시록 13:12.

여기서 "power" G1832라는 단어는 (능력의 의미에서) 특권, 즉 위임된 영향력: 권세, 관할권, 자유, 권능, 권리, 힘을 뜻한다. 12절에서 "power"라는 단어는 땅의 짐승이 바다의 짐승의 위임된 권세임을 가리키고 있다—미국은 바다의 짐승의 대리 대표자이다. 미국은 첫째 짐승의 모든 위임된 권세를 행사한다. 2절에서 이교 로마는 교황권에 세 가지를 주었다. 클로비스는 496년 툴비아크 전투에서 자신의 군사적 및 경제적 세력을 교황권에 주었다. 콘스탄티누스는 330년에 제국의 'seat'을 내어주었고, 유스티니아누스는 533년에 칙령으로 교황을 이단자들의 교정자이자 교회들의 수장으로 규정하였다. 496년의 클로비스는 1989년의 레이건을 예표한다. 레이건은 트럼프를 예표한다.

투르의 그레고리우스(거의 한 세기 뒤에 이를 기록한 사람)에 따르면, 클로비스는 전투에서 밀리고 있었고 절박해진 나머지 가톨릭의 하느님께 도움을 청했다. 그의 아내 클로틸다는 이교에서 개종하라고 그를 설득해 오던 가톨릭 신자이자 부르고뉴의 공주였다. 클로비스는 승리한다면 가톨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서약했다. 전세는 바뀌었고—그것이 신의 개입이었던 군사적 전략이었던—클로비스는 알레만니족을 격파하여 그들의 왕을 죽이고 군대를 흩어지게 했다. 서약대로 그는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전통적으로 496년 성탄절에 랭스에서 레미기우스(성 레미) 주교에 의해 집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개종은 전환점이 되어, 클로비스를 게르만 지배자들 가운데 최초의 가톨릭 왕으로 만들었다(아리우스파 그리스도교를 믿던 서고트족이나 동고트족과는 달리). 이는 프랑크족을 로마 교회와 결속시키고, 그가 갈로로마인과 교황청의 지지를 얻도록 했다. 클로비스의 세례는 가톨릭 국가로서의 "프랑스의 탄생"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자주 여겨지며, 이를 통해 프랑스는 아리우스파나 이교를 따르던 다른 야만족 왕국들과 구별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교에서는 프랑스를 "가톨릭 교회의 장자"이자 "가톨릭 교회의 맏딸"이라고 부른다.

496년에 클로비스가 교황권의 첫 대리 세력이 되었을 때, 그는 1989년에 대리 세력이 된 레이건을 예표했다. 레이건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역사 속에서 남방 왕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 동맹이 결성되었다. 1798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두로의 음녀는 숨겨져 있으며, 그녀는 가장 북쪽의 왕국인 마케도니아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바로 그 동일한 음녀다. 그녀는 예언적으로는 숨겨진 북방 왕이지만, 여전히 자신이 무오류임을 주장한다.

교황은 또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대표하는데, 그들은 세 번의 대리전쟁 내내 예언적으로는 감추어져 있으나 결국 파니움 전투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제국 로마에서 교황 로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니엘은 이교 로마가 성경 예언의 네 번째 왕국으로서의 때를 마쳐 가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깃딤의 배들이 그를 대적하여 올 것이므로 그는 낙심하여 돌아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행하고 다시 돌아와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내통할 것이다. 다니엘 11:30

해당 구절에서 '거룩한 언약을 버리는 자들'은 가톨릭 교회를 가리킨다. 거룩한 언약을 버리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의 타협하는 교회이며, 바울에 따르면 불법의 사람이 드러나기 전에 배도할 자들이다.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해진 공격과 제칠일 안식일에 대한 공격으로 표상되듯, 언약을 버린 자들이며, 이 둘은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점진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앞서 11장에서 '언약'이 또한 언급된다.

이 두 왕의 마음이 모두 악을 꾀하려 하고 한 상에서 거짓을 말하리니, 그러나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는 아직 끝이 정한 때에 있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겠고,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대적할 것이며, 그는 큰 일을 행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돌아와 남쪽으로 향하겠으나, 이번은 전과 같지도 후와 같지도 아니하리라. 다니엘서 11:27-29.

이 구절들에서 "그"는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그 뒤에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 이 두 번의 "귀환"은 두 차례의 승리를 가리키며, 이어서 도시 로마로의 개선 "귀환"이 뒤따랐다. 첫 번째는 기원전 31년에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상대로 한 악티움 전투였고, 두 번째는 서기 70년 예루살렘 파괴 이후였다. 구절들에 나오는 "정한 때"는 330년으로, 이는 24절의 예언적 "때"(삼백육십 년에 해당하는 기간)의 종결점을 지목한다.

한 상에서 거짓을 말하는 두 왕은 '정한 때' 이전에 그렇게 한다. 이는 '아직 끝은 정한 때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려해야 할 질문은 그 구절이 "그때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그것은 정한 때에 그가 돌아온다는 뜻인가? 아니면 두 왕이 한 상에서 거짓을 말하면 그가 돌아온다는 뜻이며, 따라서 그 귀환은 정한 때 이전이라는 뜻인가?

유라이어 스미스는 두 번의 귀환을 기원전 31년과 서기 70년으로 지목하며, 이는 정한 때인 서기 330년 이전의 역사를 가리킨다고 본다. 스미스는 또한 29절의 '귀환'은 330년 이후이며, 악티움과 예루살렘 전투 이후의 귀환들처럼 성공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한 때 이전에 거짓이 오가는 회담이 있고, 이어서 거짓을 말하던 두 왕 중 한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며, 그가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고 위업을 행한 뒤 정한 때인 서기 330년에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남방을 공격하나, 그것은 악티움 해전이나 예루살렘의 파괴와는 같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들에서 묘사되는 주후 70년의 역사는, 본문에서 '거룩한 언약'으로 표상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의 종말을 드러낸다. 30절에서 이교 로마는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결탁한다. 주후 70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고대 문자적 이스라엘의 바로 그 종말이었으며, 30절은 주후 70년으로부터 사 세기 뒤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다. 30절이 대표하는 역사에서 언약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인 백성이 맺은 언약을 버린 자들이다. 로마 교황권은 30절에서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로 표상된 교회이다.

깃딤의 배들이 그를 대적하여 올 것이므로 그는 낙심하여 돌아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행하고 다시 돌아와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내통할 것이다. 다니엘 11:30

29절은 우리를 서기 330년으로 이끈다. 그때는 콘스탄틴이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김으로써 정해진 때가 성취된 때였다. 그 이정표에서 이교 로마는 남쪽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으나, 그 전쟁은 악티움과 예루살렘에서 거두었던 것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오늘날 카르타고로 알려진 키딤에서 해상 전쟁을 개시한 겐세릭이 이교 로마를 공격한다. 이 이교 로마를 상대로 한 전쟁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 중 둘째 나팔로도 상징되었다. 그 나팔들 가운데 첫 네 나팔은 476년까지 서방 로마를 몰락으로 이끌었다. 그 첫 네 나팔 가운데 키딤의 배들을 가리키는 둘째 나팔이 가장 혹독했는데, 겐세릭이 바다를 장악하여 제국의 부가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깃딤의 배들을 맞닥뜨리고 근심하게 된 그는 돌아와 거룩한 언약을 대하여 분노한다. 이는 538년에 교황권이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데 이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전쟁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 후 그는 돌아와 "거룩한 언약을 버리는 자들과 교통한다."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사이의 그 상호작용은 533년에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으로 성취되었다. 다음 절, 곧 31절은 이어서 이교 로마가 어떻게 "근심되었다"고 하는지를 말한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울은 이교 로마가 538년에 교황권이 지배권을 장악하는 것을 "억제하였다"고 가르친다. 그가 바다로부터의 공격으로 인해 그 왕국의 경제가 파탄 나 근심하게 된 후, 그는 거룩한 언약을 대하여 분노하고, 이어 그 언약을 버리는 자들과 교통한다. 다음 구절들에서는 클로비스가 496년에 교황권에 부여한

권세를 상징하는 "군대"가 일어서서, 역사적으로 로마 도시를 가리키던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이어 이교 로마는 그 영역에서 이교의 종교(the daily)를 제거하여 이를 가톨릭으로 대체하고, 마침내 538년에 교황권을 보좌에 앉힌다.

538년에 교황권이 권세를 받았을 때, 그 사건은 우리가 살피고 있는 구절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언적 증언과 역사적 증언을 모두 제공했다. 538년은 기원전 31년과 악티움 해전으로 예표된다. 다니엘 8장 9절에서 이교 로마는 세상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정복한다. 첫째는 동쪽의 시리아, 그다음 유다와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악티움 해전에서의 이집트였다. 교황 로마 또한 세 개의 뿔이 뿔렸는데, 그 셋째는 538년에 로마 시에서 축출된 고트족이었다.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는 악티움 해전이 538년과 일치함을 보여 주는 두 증언을 제공하며, 또한 538년은 미국의 일요일 법령을 예증하는데, 그것은 현대의 로마가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때를 가리킨다.

우리는 27절부터 31절까지의 개관을 마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구절들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11절부터 15절의 역사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